

본 상 2004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KT 여의도 빌딩

KT-Telecommunication Center, Youido

설 계 자 | (주)임&이중함건축사사무소 이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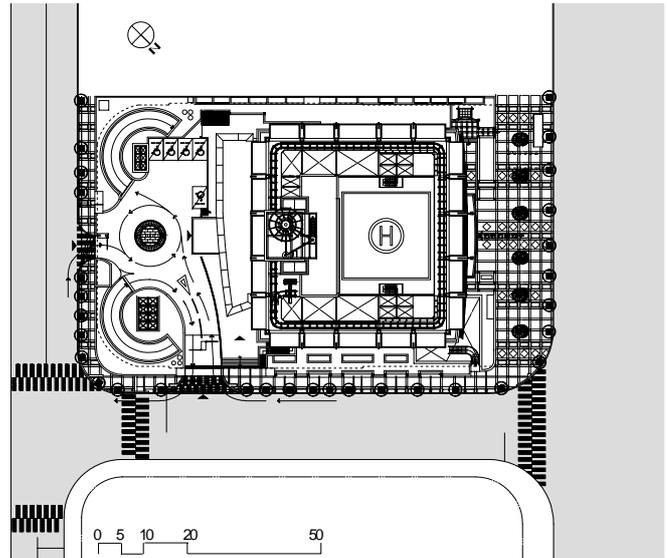
시 공 자 | (주)동원이엔씨

건 축 주 | (주)케이티



건축개요

위 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2, 4번지
지역 지구	일반상업지역, 공공시설보호지구, 1종집단미관지구
주요 용도	업무시설, 공공용(통신)시설, 근생시설
대지면적	6,615.00㎡
건축면적	2,653.11㎡
연 면 적	65,138.48㎡
건 폐 율	39.96%
용 적 륜	676.90%
규 모	지하5층, 지상21층, 옥탑1층
외부 마감	유리커튼월, THK30화강석, AL 슈트
주차대수	250대
설계 담당	이문재, 이재영, 주영환
사 진	건축사사무소제공



배치도

KT여의도 빌딩은 기존의 국가 보안시설이었던 한국통신시설의 폐쇄적인 전회국 시대를 접고, 21C 유비쿼터스(Ubiquitous)시대에 발맞춰나가는 KT의 첨단네트워크 이미지를 대표하는 최초의 건축물이다.

도심(강북)과 강서를 잇는 여의도 중심축인 여의도 공원이란 전면에 위치한 이 부지는 북서쪽으로 시민공원이 조성되어 매우 양호한 조망이 형성되며, 동남쪽에 대단위 주거 단지(광장APT)가 위치해 있어 주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시각적인 폐쇄가 필요 하였다. 차량 이용시 광장로(폭79.5m)를 통해 측면도로를 통한 후면 진입이 가능해 영등포와 마포 양측에서 접근이 모두 용이하고, 대중교통 이용시 전면에서 Bus 및 Taxi 승강장이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건물의 후면 접근이 용이하여 Main 로비를 후면에 배치하였다.

일부는 전화국으로, 일부는 임대사업에 쓰이는 이 건물은 Top Down 시공을 전제로 설계되었으며, 저층부(1층~3층)는 아트리움 로비와 대강당으로 개방감과 접근의 용이성을 주었다. 그리고 4, 5, 6층은 KT의 전화국으로 7층부터 19층까지는 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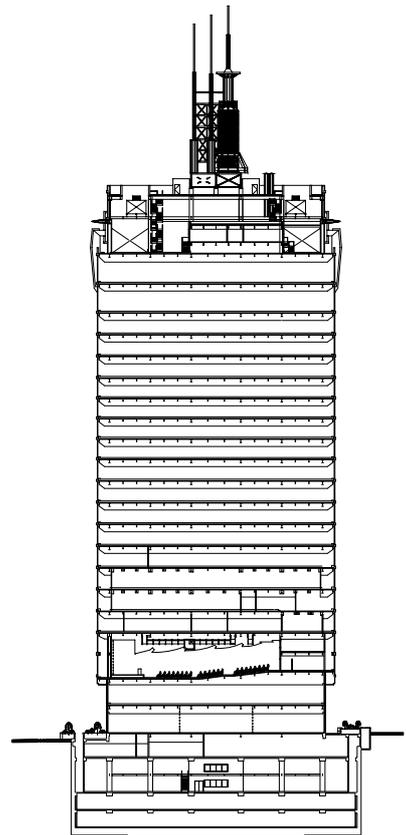
사무실, 20층은 스카이라운지(뷔페식당)로 쓰이게 된다. 따라서 기존층들은 KT 본연의 원활한 네트워크 System에 맞게 Open Office-landscaping 개념을 도입하여 장 스펠으로 계획하여 Flexible한 평면을 갖게 되고, 채광보다는 조망을 중시하는 현 추세를 반영하여 여의도공원 쪽을 향해 실내를 전면배치하고, 내부에서의 시각적 개방감의 극대화외 외부에서의 시각적 폐쇄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All Glass Curtain Wall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Void한 매스는 Head of the Solid한 매스와 대비되며 이로 인한 시각적 분리를 막기 위해 수직적 장식요소를 사용하여 상하부의 연결성과 조형미를 나타내게 되었다. 반면, 후면부에 Core 배치를 하여 광장 APT와의 시선교환을 직간접적으로 막으면서 최근 고층건물이 지역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반감의 요소를 최소화하였다.

단면 계획으로는 I.B.S (Intelligent Building System)적용이 가능하도록 4.5m의 층고를 확보하였고, KT의 기능에 부합 되도록 각 실에 Access Floor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대규모 인원의 비상 이동시 피난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강당(3층), 스카이라운지(20층) 등을 피난층에

근접 배치하였고, 설비계획상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바닥 취출 공조 방식을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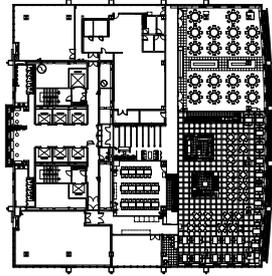
국내 최초로 시공 전 단계에서 알루미늄 창호의 전문가와 관계인들의 연구 개발에 따라 Mock-up Test를 실시한 프로젝트로서 일반 고층 빌딩에서 여태까지 채택되어 왔던 착색유리와는 다른 맑은 유리(clear glass)를 사용하여 KT 본연의 투명 이미지를 강조하고, 인근 건물에 일반반사로 인한 불쾌감과 현휘를 거의 없앴으며, 태양 입사각에 따른 루버 사용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1.7m의 알루미늄 태양광 차단 루버는 유리창에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직사광을 막아주어 효율적인 업무 공간을 형성하고, 강력한 수평적 디자인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나치게 평활하고 단조로운 느낌을 줄이고자 하였다.

건축가의 과도한 엘리트코드(Ellite-code) 주장과 그로인해 빚어질 건축가의 대착각(Architect fallacy)을 경계하며, 이 건물은 도시의 건축들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건축으로써 여의도의 바람직한 Land-mark가 되어주길 바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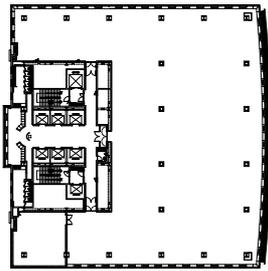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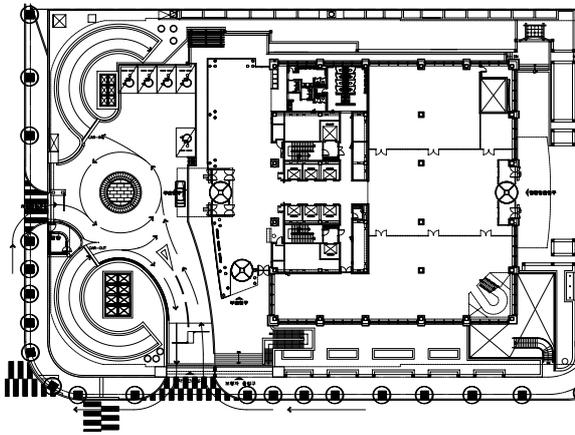




20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1층 평면도

